

당신들은 어찌하여?

성경말씀: 행26:1-8

1.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 선포, 벨릭스는 떨었지만 기회를 놓침. 후에도 여러 차례 바울을 만났으나 오히려 뇌물을 바람, 2년이 지나면서 베스도 총독이 옴. 바울을 옥에 둠
2. 베스도가 부임 후 사흘 뒤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감.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줄 것을 구함. 중간에 그를 죽이려고. 베스도의 No, 10일 이상 마무리고 가이사라로 내려가 다음날 재판을 옴. 유대인들이 증거를 대지 못함. 바울의 항변.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재판을 받겠느냐고 물음. 바울의 No!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황제에게 청원한다.” 베스도: “그러면 로마로 가라.”
3. 이때에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축하하려고 나타남. 이 아그립바 역시 헤롯 대왕의 증손자, 행12의 헤롯의 아들,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 버니게는 그의 여동생(드루실라의 언니), 버니게는 자기의 삼촌과 결혼했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오빠와 같이 삶. 근친상간의 대명사, 헤롯 가문의 수치 증명
4. 베스도가 바울 사건에 대해 설명함: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를 고소했지만 그를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미신과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가 원하므로 로마로 보내기로 하였다. 아그립바가 “나도 그 f p 대해 듣고 싶다”, 이 정도로 바울 문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사
5. 다음날 아그립바와 버니게와 주요 인사들이 베스도의 청문회에 나타남(25:23). 바울이 끌려나옴. 베스도의 청문회 개최 배경 설명: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에서 바울을 고발함. 그런데 알아보니 그는 죽을 짓을 하지 않음. 로마로 보내야 하는데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적을 것이 없으므로 왕 앞에서 심문하려 하니 도와주기 바람.

1절: 아그립바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허락함

2-3절: 왕이 유대인들의 관례와 문제를 잘 알므로 다행이다. 인내하며 들어주소서. 바울의 태도

4-5절: 나는 다소에서 태어나 젊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민족 가운데 지냈다. 나의 행적은 그들이 잘 안다. 가밀리엘 밑에서 공부, 바리새인, 그리스도인들 핍박, 열정을 가지고 유대교 신봉, 이득

6-7절: 내가 지금 심판받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소망, 그것은 곧 부활의 소망,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은 우리의 부활을 선포하니 문제가 됨(딤후3:12).

8절: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합니까?”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었지만 그 개념이 매우 희박하였다.

구약에서는 많은 것들이 희미하였다: 욥19:25-27, 단12:2-3, 13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죽음,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21-24, 구약 성도들도 부활 개념이 약함 그래서 관념적인 종교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권력층

예수님의 증언(마22:23-33)

29절: 너희가 성경기록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느니라.

1. 성경 말씀에 약하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

2.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한다. 파워(창조, 홍해, 휴거)

3. 그러면 잘못하여 지옥에 간다(막12:27).

4.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어라고 하셨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죽었느냐, 살아 있느냐?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해 사느니라(눅20:38),

33절: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더라. 이렇게 확신있게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어떤가?

1.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 소망을 가지지 못하였다. 우리는 어떤가?

바울의 질문: “당신들은 어찌하여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

2.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부활을 믿는 것이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부활신앙!
 - a. 요삼2: 네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혼의 형통은 곧 부활
 - b. 이런 사람은 돈만 달라고 떼쓰지 않는다. c.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뜻
3.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를 변화시킨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매료되어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평생토록 부활의 복음을 증언/선포하였다.
4.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힌 채 적은 그의 서신 빌립보서 3:7-11
5. 고전15:12-19, 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 거짓말, 그러면 우리의 복음 선포 허사, 믿음이 허사, 우리는 거짓 증인,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다, 이미 죽은 성도들도 멸망하였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
 - a. 20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 b. 50절: 이 육체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 c. 51-55절
 - d. 어찌하여 당신들은 이 부활과 휴거의 소망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느냐?
죽은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1. 나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No problem!
2. 너무 늦었습니다. No problem!
3. 우리의 문제들: 결혼, 가정, 시험, 취업, 재정, “어찌하여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자. 렘333법칙,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4. 킹제임스 성경, “어찌하여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은 하실 수 있다.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렘32:17)
5. 교회, 너무 어렵다. 모이기가 어렵다. 핍박이 심하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렘23:29)
권능의 하나님(엡3:20-21)

1.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 이러려면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날 것을 믿는가?
 영원히 이 몸이 사는 것을 믿는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릴 줄 믿는가?

그러려면 구원 받아야 한다.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정죄의 부활에 들어간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주여 도와주소서” 외쳐라. 부활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오늘 실천해야 한다.